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

급여유무별 비교

이혜원*

이 연구는 전국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73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438명을 대상으로 노화사실에 관한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급여유무별로 비교 측정하고, 이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노화사실인지척도(1982)를 재구성하여 노화사실에 관한 인지정도를 측정하고, 윤진(1988)의 척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그 타당도를 검증한 후 노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였다. 이 결과,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에 대한 인지정도는 24점을 기준으로 14.18점으로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는 5점을 기준으로 2.56점으로서 중도의 태도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의 급여유무별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노인에 대한 가정봉사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특성, 노화인지관련 특성, 직무특성 등 3개 변수집단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화사실

* 이 연구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매뉴얼 개발사업의 기초 조사로서 실시되었음.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인지정도, 성, 노인대상 봉사경험, 근무시설 소재지, 연령, 노인과 동거경험의 순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봉사원의 급여유무는 노인 행동특성에 대한 태도(하위 태도2)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유급 가정봉사원의 노인 행동특성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근무시설 소재지인 반면에, 무급 가정봉사원의 경우는 성과 연령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노인에 대한 가정봉사원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서론

일반적으로 노인은 성(性) 생활을 할 능력이 없다,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한다 등과 같은 노인에 대한 편견(bias)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노화(aging)에 대한 비과학적인 인식과 노인의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태도는 노인과 가족과의 관계는 물론 사회적 관계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심리적인 손상을 받거나 격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초래될 수 있는 노인의 심리적 손상을 최소화하여 고립감을 없애고, 노화라는 신체적 조건에서도 최대한 자립을 유지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노인복지인력의 역할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화 및 노인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복지인력 가운데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환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Dupuis, 1970; Frenay·Pierce, 1971; Rankin·Burggraff, 1983; 송미순, 1984). 특히 Frenay·Pierce(1971)는 우울증에 빠진 75세 노인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긍정적인 태도가 노인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고하였으며, Campbell(1971)의 연구결과도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에만 간호의 효과성이 높았음을 검증하였다. 한편 Garfinkel(1975)의 연구에서는 의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며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이해원(1999)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긍정적이며, 이들의 노화사실 인지정도, 노인과 동거경험,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으나, 가정봉사원(home helper)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아직 한 편도 없다. 특히 가정봉사원은 재가노인복지팀의 구성원으로서 노인가정에 단독으로 파견되어 노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는 인력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게 되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가족수발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함께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1987년부터 지역사회 보호차원에서 노인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함으로써 노인 본인의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수발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또한 노인의 장기적인 보호욕구 증대에 대응하고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야간서비스, 용변수발, 목욕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급 가정봉사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노인과 같은 중증 질환노인을 담당할 수 있는 간호전문 가정봉사원의 양성 등 노인의 욕구별 가정봉사원의 역할분화가 모색되고 있다. 1993년 이후 정부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도 노인복지시책의 일부로서 가정봉사원파견 및 양성교육사업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1년은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로서 가정봉사원의 활동은 국내외적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시점에서 노인에 대한 가정봉사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들의 양성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 인지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급여유무별로 비교 측정하고, 이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노인에 대한 가정봉사원의 긍정적 태도를 유도할 수 있는 실천방안으로서 급여유무별 가정봉사원의 양성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의 고찰

1)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

노화사실 인지정도란 인간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노화에 관한 사실(facts)을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노인의 가족과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인력에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노화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와 같은 지식과 이해에 바탕을 두고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만이 노인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노화사실 인지정도 측정에 관한 최초의 선행연구는 Tuckman·Lorge(1953)의 연구로서 노화사실 인지정도 및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13개 영역 100개 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으나, 척도의 문항수가 너무 많고 노화에 대한 사실과 태도를 혼동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Palmore(1977)는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노화사실인지척도(Facts on Aging Quiz)를 개발하여 노화사실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의 인지정도를 정답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노화에 대해 가장 보편적으로 갖는 오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척도를 사용하였던 Palmore(1980)의 연구결과, 미국 간호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는 평균 정답률 62.0%로 나타났다. 한편 Miller·Dodder(1980)는 FAQ 척도(1977) 문항의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고 응답 선택에서 “모르겠다”를 추가하여 FAQ 수정판을 구성하였다. 윤진·조석미(1982)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FAQ 척도(1977)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24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대학생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정답률 52.8%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병원 간호사와 일반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각각 측정한 송미순(1984)과 손주은(1989)의 연구에서는 평균 정답률이 65.0%와 58.8%로 나타났다. 한편 이 척도를 최근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이해원(1999)의 연구에서는 평균 정답률이 65.3%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 연구는 미국과 일본에서 주로 수행되었다. 우선 Tuckman·Lorge(1953)는 서구사회에서 발견되는 노인에 대한 편견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기초로 Kogan(1961)은 17개의 긍정적 문항과 17개

의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된 노인태도척도(The Attitude Toward Old People Scal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를 사용한 Spence(1968)와 Garfinkel(1975)의 연구에서는 의사와 의과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며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alnan·Hanron(1970)과 Campbell(1971)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와 간호학과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ampbell(1971)의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이 월급이나 다른 조건이 더 좋더라도 노인환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척도를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김은일(1982)과 김효신(1994)의 연구결과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한편 Kogan(1961)의 척도가 노인에 대한 태도를 단일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척도간의 상관관계의 범위가 너무 넓게 퍼져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Kilty·Feld(1976)는 노인에 대한 태도측정에 요인분석방법을 적용하여 4개 요인별 45개 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 노인전문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Benson(1982)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중도에서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Rankin·Burggraff(1983)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일본의 前田大作(1983)는 3세대간의 심리적 역동관계 및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에 따라 3개 요인별 8개 문항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미국의 자료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保坂久美子 外(1988)의 연구 결과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中野い<子(1991)와 冷水豊 外(1993)의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국내에서는 Osgood·Suci·Tannenbaum(1957)의 의미분석척도를 재구성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송미순(1984)의 연구결과,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척도는 노인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형용사의 의미를 3개 요인(평가인자, 활동인자, 능력인자)별로 분석하여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노화의 사회·심리적 측면에 대한 태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제한되어 있다. 이에 윤진(1988)은 요인분석에 의하여 5개 요인(자녀-가족관계, 행동특성, 능력감퇴, 사회적 유리경향, 일상생활 관련소외)별 24개 문항의 노인태도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간호학과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유지수 외(1991)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났으나,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사의 태도를 측정한 이혜원

(1999)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2)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연령, 노인과 동거경험,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 학력, 노화사실 인지정도, 근무경력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서로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를 3개 변수집단, 즉 개인특성(연령, 노인과 동거경험,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과 노화인지관련특성(학력, 노화사실 인지정도), 그리고 직무특성(근무경력)으로 나누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특성변수와 관련하여 Campbell(1971)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송미순(1984)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Gillis(1973)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Campbell(1971), 최경옥(1976), 김매자(1978), 송미순(1984) 등의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노인과 동거경험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해원(1999)의 연구에서는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경우가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일본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中野いく子(1991)와 冷水豊外(1993)의 연구에서도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해원(1999)의 연구결과,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경우가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김매자(1978)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결혼상태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인지관련특성 변수와 관련하여 Calnan·Hanron(1970), Campbell(1971), 최경옥(1976), 등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나, 송미순(1984)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 학력, 노인간호에 대한 교육이수 여부는 노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이해원(1999)의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노인대상 실습이수 여부나 노인복지 과목이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노화사실 인지정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이들의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기 위한 시도로서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가운데 King(1983)은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대상 실습전후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측정한 결과, 실습 전의 부정적 태도가 실습 후에는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직무특성 변수와 관련하여 Gillis(1973)의 연구에서는 근무경력이 2년 정도인 양로시설 간호사가 노인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부정적인 태도로 바뀌나 근무경력 9년 이상이 되면 다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간호사만이 계속 양로시설에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종합병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송미순(1984)의 연구결과도 Gillis(1973)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최경옥(1976)과 이혜원(1999)의 연구에서는 근무경력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이 연구는 전국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전체 73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정봉사원을 대상으로 1999년 1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정 지역에 소재한 시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한 시설에서 6명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직위에 의한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연구대상의 직위를 유급 가정봉사원 3명과 무급 가정봉사원 3명으로 제한하였다. 총 438부(73×6)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310부(회수율 70.8%)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299사례를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변수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가정봉사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윤진(1988)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윤진(1988)은 Kilty & Feld(1976)의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를 재구성하여 국내에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개 문항으로서 노인에 대한 태도를 노인의 자녀-가족관계에 대한 긍정적 효과, 행동특성의 부정적 변화, 능력감퇴경향, 사회적 유리경향 및 일상생활관련 소외 등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문항은 역산되었다. 따라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윤진(1988)의 태도 척도에 대하여 사전검사(pre-test)를 통해 신뢰도가 낮은 3개 문항을 제외하고 21개 문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요인부하량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전체 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80이었으며,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자녀-가족관계 .57, 행동특성 .73, 능력감퇴경향 .64, 사회적 유리 및 일

<표 1>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의 구성 타당도 및 신뢰도 (Cronbach's α)

하위영역	척도문항	요인부하량 (요인분석)	신뢰도	하위영역	척도문항	요인부하량 (요인분석)	신뢰도
자녀-가족 관계 (태도1)	*태도1-1	.541	.57	능력감퇴경향 (태도3)	*태도3-1	.562	.64
	태도1-2	.590			*태도3-2	.645	
	태도1-3	.604			*태도3-3	.611	
	태도1-4	.676					
	태도1-5	.762					
	태도1-6	.582					
행동특성 (태도2)	*태도2-1	.691	.73	사회적 유리 경향 및 일상 생활관련소외	*태도4-1	.600	.72
	*태도2-2	.542			*태도4-2	.529	
	*태도2-3	.646			*태도4-3	.609	
	*태도2-4	.667			*태도4-4	.611	
	*태도2-5	.757			*태도4-5	.639	
	*태도2-6	.524			*태도4-6	.789	

태도 전체 (21문항)의 신뢰도: .80 (전체 요인의 설명력: 62.75%)

* 표시된 문항은 역문항이다.

상생활 관련 소외경향 .72이었다.

(2) 독립변수

이 연구는 독립변수를 크게 가정봉사원의 개인특성, 노화인지 관련특성, 직무특성 등 3가지 변수집단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각 독립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다. 이 독립변수들 가운데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lmore (1977)의 척도를 번역하여 수정한 윤진·조석미(1982)의 노화사실 인지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개 문항으로서 노화사실의 신체적 인지영역(9개 문항)과 심리적 인지영역(9개 문항), 그리고 사회적 인지영역(6개 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그렇지 않다’ 또는 ‘모르겠다’로 선택하여 표시한 후, 표시된 전체 응답 가운데 정답의 경우는 1, 정답이 아닌 경우(‘모르겠다’ 포함)는 0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사실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의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과학적 사실로서 밝혀진 노화에 관하여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확실하며, 유지수 외(1991), 이해원(1999) 등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한편 이 연구의 척도는 노인인구의 변화 등에 따라 노화사실인지척도(1982)와 비교하여 노화사실의 사회적 인지영역에서 4가지 문항의 내용이 수정·보완되었다.

<표 2> 독립변수의 정의

개인 특성	1. 성별(여성 = 1, 남성 = 0) 2. 연령(만) 3. 결혼상태(기혼 = 1, 미혼 = 0) 4. 노인과 동거경험(동거 = 1, 비동거 = 0) 5. 노인대상 자원봉사 경험(봉사 = 1, 비봉사 = 0)
노화 사실 인지 정도 관련 특성	6. 학력(전문대 졸업 이상 = 1, 고등학교 졸업 = 2, 중학교 졸업 이하 = 3) 7. 가정봉사원 교육이수(교육 = 1, 비교육 = 0) 8. 노화사실 인지정도(노화인지척도 점수의 총합)
직무관련 특성	9. 급여의 수급유무(유급 = 1, 무급 = 0) 10. 활동기간(개월 수) 11. 근무시설 소재지(대도시 = 1, 중소도시 = 2, 농어촌 = 3)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가정봉사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 문항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끼리 몇 가지 집단으로 묶기 위하여 사전검사 단계에서 회수된 설문지로 주 요인분석(principal factor with iteration)을 실시한 후, 직각회전(varimax)을 통하여 Eigen value 1.00 이상인 4가지 하위척도 요인들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요인의 62.75%를 설명하고 있다. 이 요인분석 단계에서 확인된 각 척도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표 1>과 같다. 한편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 인지정도 및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고, 측정된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가정봉사원의 급여유무별 차이와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 ANOVA,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가정봉사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때에 앞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들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SPSS 8.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4) 연구문제

이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① 연구문제 1-1 :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에 관한 인지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 가정봉사원의 급여유무별 노화사실 인지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② 연구문제 2-1 : 가정봉사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 가정봉사원의 급여유무별 노인에 대한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③ 연구문제 3-1 : 가정봉사원의 노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④ 연구문제 3-2 : 유급 가정봉사원의 노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3 : 무급 가정봉사원의 노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4. 연구 결과

1) 가정봉사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기술적 분석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분포는 여성 94.0%, 남성 6.0%로서 우리나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일반적 성별 분포를 반영하고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연령은 평균 41.9세로서 연구대상 전체의 63.2%가 40대 이상이며, 84.9%가 기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대상 전체의 70.6%가 가족으로서의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고, 90.6%는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상 25.4%, 고등학교 졸업 50.8%, 중학교 졸업 이하 23.8%이며, 전체의 87.0%는 가정봉사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활동기간은 평균 21.8개월이며,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소재지는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지역 분포를 반영하여 중소도시 55.5%, 대도시 34.1%, 농어촌지역 10.4%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가정봉사원교육을 이수한 후 도시에서 1년 이상 가정봉사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40대 이상의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급 가정봉사원 146명과 무급 가정봉사원 141명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살펴보면, 유급 가정봉사원의 평균 연령이 42.9세로서 무급 가정봉사원의 40.9세보다 약간 더 많으며 기혼비율도 유급 가정봉사원 91.8%로서 무급 가정봉사원의 80.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활동 이전에 노인대상 자원봉사를 경험하였던 유급 가정봉사원은 136명(93.2%)으로서 무급 가정봉사원의 124명(87.9%)보다 더 많으며, 가정봉사원 교육이수 비율도 유급 가정봉사원 91.8%로서 무급 가정봉사원의 81.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에 있어서는 무급 가정봉사원 가운데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가 29.1%로서 유급 가정봉사원의 20.5%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봉사원의 성별, 노인과 동거경험, 활동기간, 근무시설 소재지에서는 급여유무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급 가정봉사원이 무급 가정봉사원보다 평균적으로 연령이 더 많고 기혼비율도 높으며, 학력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 및 가정봉사원 교육이수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 연구대상 가정봉사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	백분율(%)	Mean		S. D.	
성 별	여성	281	94.0				
	남성	18	6.0				
연 령	20대	38	12.7	41.9		9.49	
	30대	69	23.1				
	40대	126	42.1	유급	무급	유급	무급
	50대 이상	63	21.1	42.9	40.9	8.54	10.34
	무응답	3	1.0				
결혼상태	기혼	254	84.9				
	미혼	41	13.7				
	기타	4	1.3				
노인과 동거경험	동거경험 있음	211	70.6				
	동거경험 없음	88	29.4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	봉사경험 있음	271	90.6				
	봉사경험 없음	28	9.4				
학 령	대학원 졸업	1	0.3				
	4년제 대학 졸업	47	15.7				
	전문대학 졸업	28	9.4				
	고등학교 졸업	152	50.8				
	중학교 졸업	55	18.4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	5.4				
가정봉사원 교육이수	교육 이수하였음	260	87.0				
	교육 이수하지 않았음	39	13.0				
활동기간	6개월 이하	87	29.1	21.8		22.60	
	7개월~12개월 이하	70	23.4	유급	무급	유급	무급
	13개월~36개월 이하	84	28.1	21.9	21.2	18.79	26.16
	37개월 이상	47	15.7				
근무시설 소재지	대도시	102	34.1				
	중소도시	166	55.5				
	농어촌지역	31	10.4				
급여 유무	유급	146	48.8				
	무급	141	49.1				

2)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에 관한 기술적 분석 및 급여유무별 차이검증

연구대상자들의 노화사실에 대한 인지정도는 전체 24점(24문항×1점)을 기준으로 평균 14.18점으로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화사실 인지 문항에 대한 평균 정답률로 환산하면 59.1%이다. 이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미국 간호사의 평균 정답률 62.3% (Palmer, 1980),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정답률 65.0% (송미순, 1984), 우리나라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사의 평균 정답률 65.3% (이혜원, 1999) 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 인지 문항에 대한 평균 정답률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인지영역별로 각각 66.3%, 55.7%, 59.9%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적 인지영역의 평균 정답률이 가장 높고, 심리적 인지영역의 평균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평균 정답률 90.0% 이상을 나타낸 문항은 신체적 인지영역의 “노년기에 이르면 육체적인 힘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97.3%),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의 다섯 가지 감각은 그 기능이 감퇴한다”(97.0%), “노인이 되면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91.3%)와 사회적 인지영역의 “노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97.3%),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 가운데 50% 이상의 노인들이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90.3%)이다. 반면에 정답률 30.0% 이하를 나타낸 문항은 사회적 인지영역의 “199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 이상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다”(16.1%), 신체적 인지영역의 “노인들의 50% 이상은 노쇠하여 기억장애·방향감각장애·정신장애 등을 나타낸다”(18.1%), 심리적 인지영역의 “노인들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종교를 믿으려는 경향이 늘어난다”(28.1%)이다.

한편 가정봉사원의 급여유무별 노화사실 인지정도의 차이를 분석하면,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급 가정봉사원의 사회적 노화사실에 대한 인지정도(평균 정답률 62.3%)는 $p < .01$ 유의수준에서, 그리고 유급 가정봉사원의 전체 인지정도(평균 정답률 61.2%)는 $p < .001$ 유의수준에서 무급 가정봉사원의 경우(각각 57.1%와 57.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급 가정봉사원의 연령과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 그리고 가정봉사 교육이수 경험이 무급 가정봉사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노화사실 인지 문항별 가정봉사원의 평균 점수·표준편차·평균 정답률

하위영역	척도문항	Mean	S. D.	평균 정답률(%)	하위영역	척도문항	Mean	S. D.	평균 정답률(%)
신체적 인지영역 (인지1)	인지1-1	.97	.17	97.0	사회적 인지영역 (인지3)	인지3-1	.38	.49	38.5
	인지1-2	.18	.39	18.1		인지3-2	.51	.50	50.5
	인지1-3	.42	.50	42.5		인지3-3	.63	.48	62.9
	인지1-4	.83	.37	83.3		인지3-4	.90	.30	90.3
	인지1-5	.97	.16	97.3		인지3-5	.97	.16	97.3
	인지1-6	.33	.47	33.1		인지3-6	.52	.50	52.2
	인지1-7	.59	.49	58.9		인지3-7	.59	.49	58.5
	인지1-8	.91	.28	91.3		인지3-8	.16	.37	16.1
	인지1-9	.76	.43	75.6		인지3-9	.73	.44	73.2
	인지1 전체	5.96	1.29	66.3		인지3 전체	5.39	1.38	59.9
심리적 인지영역 (인지2)	인지2-1	.52	.50	52.2					
	인지2-2	.67	.47	66.9					
	인지2-3	.51	.50	50.5					
	인지2-4	.28	.45	28.1					
	인지2-5	.65	.48	65.2					
	인지2-6	.71	.45	71.2					
	인지2 전체	3.34	1.41	55.7					

인지 전체(인지1 + 인지2 + 인지3 = 24문항) 평균점수 : 14.18점(표준편차 2.55), 평균정답률 : 59.1%

〈표 5〉 가정봉사원의 급여유무별 노화사실 인지정도의 차이

종속변수 (노화사실 인지정도)	가정봉사원의 급여유무별 평균 점수·정답률						t
	유급 가정봉사원			무급 가정봉사원			
	Mean	S. D.	평균 정답률(%)	Mean	S. D.	평균 정답률(%)	
인지1 : 신체적 인지영역 (9점 만점)	6.144	1.281	68.2	5.858	1.318	65.1	1.862
인지2 : 심리적 인지영역 (6점 만점)	3.486	1.391	58.2	3.184	1.402	58.2	1.831
인지3 : 사회적 인지영역 (9점 만점)	5.609	1.272	62.3	5.128	1.429	57.0	3.020**
전체 인지 : 인지1~3 (24점 만점)	14.685	2.389	61.2	13.695	2.619	57.1	3.348***

* p<.05, ** p<.01, *** p<.001

3) 가정봉사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기술적 분석 및 급여유무별 차이검증

연구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5점을 기준으로 평균 2.56점(51.2%)으로서 중간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전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Benson (1982)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한다. 그러나 의사나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선행연구(Garfinkel, 1975; Rankin & Burggraff, 1983; 송미순, 1984; 유지수 외, 1991) 결과는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이들 가운데 송미순(1984)의 연구결과는 5점을 기준으로 평균 2.03점(40.6%)을 나타냈다. 한편 이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재가 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이혜원(1999)의 연구결과는 3.10점(62.0%)으로서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노인전문 간호사와 가정봉사원은 노인의 곁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나 일반 간호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노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치매노인을 위한 대소변 수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사회복지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정봉사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가족관계영역 3.76점, 능력감퇴영역 2.62점, 사회적 유리 및 일상생활관련 소외영역 2.43점, 행동특성영역 1.5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봉사원은 노인의 자녀·가족관계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으나, 노인의 능력감퇴와 사회적 유리 및 일상생활관련 소외경향에 대해서는 거의 중도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노인의 행동특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특히 노인의 자녀·가족관계와 행동특성에 대하여 매우 상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태도척도의 문항별로 살펴보면, 전체 문항 가운데 3.50점 이상의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던 문항은 자녀·가족관계영역의 “노인들은 자신에 대해서보다는 자녀 걱정을 더 많이 한다”(4.73점), “노인들은 어린아이를 좋아한다”(4.57점), “노인들은 집안 일에 대해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3.88점)의 순이다. 반면에 1.50점 이하의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던 문항은 행동특성영역의 “노인들은 자신의 오래된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1.34점), “사람은 늙어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아진다”, “노인들은 새로운 물건보다 옛날부터 쓰던 물건을 계속 쓰려고 한다”(1.38점)의 순이다.

〈표 6〉 가정봉사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

하위영역	척도 문항	Mean	S. D.	하위영역	척도 문항	Mean	S. D.
자녀-가족관계 (태도1)	*태도1-1	2.71	1.25	능력감퇴경향 (태도3)	*태도3-1	2.26	1.24
	태도1-2	3.88	.86		*태도3-2	2.58	1.25
	태도1-3	3.27	1.18		*태도3-3	3.02	1.25
	태도1-4	4.57	.70				
	태도1-5	4.73	.59				
	태도1-6	3.41	1.04				
	태도1 전체	3.76	.54		태도3 전체	2.62	.95
행동특성 (태도2)	*태도2-1	1.89	.89	사회적 유리 경향 및 일상생활관련 소의	*태도4-1	1.84	.94
	*태도2-2	1.37	.56		*태도4-2	2.93	1.33
	*태도2-3	1.34	.62		*태도4-3	3.18	1.44
	*태도2-4	1.38	.69		*태도4-4	1.68	.96
	*태도2-5	1.45	.70		*태도4-5	2.37	1.20
	*태도2-6	1.96	.92		태도4-6	2.57	1.10
	태도2 전체	1.57	.48		태도4 전체	2.43	.87

태도 전체(21문항)의 평균 점수 : 2.56 (표준편차 : .53)

한편 가정봉사원의 급여유무별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면,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의 행동특성에 대한 무급 가정봉사원의 태도(평균 1.629점)가 $p < .01$ 유의수준에서 유급 가정봉사원의 태도(평균 1.497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무급 가정봉사원이 유급 가정봉사원보다 노인의 행동특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 및 가정봉사 교육이수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무급 가정봉사원이 유급 가정봉사원에 비하여 노인의 부정적 행동 특성을 직접적으로 관찰한 기회가 더 적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유급 가정봉사원은 중도의 장애·질환으로 인한 거동불편 노인을 주요한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무급 가정봉사원은 비교적 거동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하위영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하위영역 또는 태도 전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급여유무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7〉 가정봉사원의 급여 유무별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

종속변수 (노인에 대한 태도: 5점 척도)	가정봉사원의 급여유무별 평균				t
	유급 가정봉사원		무급 가정봉사원		
	Mean	S. D.	Mean	S. D.	
태도1: 자녀-가족관계	3.545	.620	3.587	.640	-.565
태도2: 행동특성	1.497	.499	1.629	.454	-2.347**
태도3: 능력감퇴	2.635	1.005	2.603	.905	.282
태도4: 사회적 소외·일상생활 관련	2.526	.903	2.544	.983	-.167
전체 태도: 태도1-4	2.535	.533	2.584	.529	-.785

*p<.05, **p<.01, ***p<.001

4) 가정봉사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연구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들 예측변인들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개인특성(성, 연령, 결혼상태, 노인과 동거경험,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 노화사실 인지관련특성(학력, 가정봉사원 교육 이수, 노화사실 인지정도), 직무특성(급여유무, 활동기간, 근무시설 소재지) 등 3가지 변수 집단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은 가정봉사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노인에 대한 전체태도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총 11개의 독립변수들 가운데 노화사실 인지정도(p=.000), 성(p=.006),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p=.026), 근무시설 소재지(p=.042), 연령(p=.043), 노인과 동거경험(p=.047)의 순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의 노인 전체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21.8%이다. 즉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경우, 노인대상 자원봉사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 근무시설 소재지가 대도시가 아닌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노인과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노화사실 인지정도변수의 경우, Calnan·Hanron(1970), Campbell(1971), 최경옥(1976), 이혜원(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자원봉사 경험변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이혜원(1999)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이는 특히 가정봉사원과 사회복지사의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의 차이에 무관하지 않은

〈표 8〉 가정봉사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Enter)

독립변수	태도1		태도2		태도3		태도4		진체태도(태도1~4)	
	β (S.E.) #	t	β (S.E.)	t	β (S.E.)	t	β (S.E.)	t	β (S.E.)	t
연령	-.143(.005) #	-1.861	-.187(.004) **	-2.474	-.043(.008)	-.545	-.062(.008)	-.799	-.148(.004) *	-2.030
성	.250(.157) ***	4.207	.120(.119) *	2.047	.088(.244)	1.437	.053(.237)	.889	.155(.126) **	2.753
결혼상태	.101(.132)	1.389	-.013(.100)	-.175	.006(.196)	-1.247	-.015(.199)	-.206	.011(.106)	.153
동거경험	.009(.080)	.162	.086(.061)	1.496	.119(.125) *	1.978	.139(.121) *	2.366	.111(.065) *	1.998
봉사경험	-.026(.127)	-.444	-.068(.096)	-1.168	-.076(.196)	-1.247	-.112(.191) #	-1.881	-.126(.032) *	-2.237
학력	.008(.040)	.121	-.084(.030)	-1.257	-.042(.062)	-.604	-.105(.061)	-1.542	-.124(.032) #	-1.939
교육이수	.055(.116)	.874	-.089(.087)	-1.442	-.089(.179)	-1.371	-.082(.174)	-1.304	-.051(.093)	-.860
노화인지	.199(.015) ***	3.352	.110(.011) #	1.879	.072(.023)	1.171	.147(.022) *	2.459	.239(.012) ***	4.246
활동기간	-.032(.002)	-.529	.020(.001)	.342	.153(.003) **	2.477	.137(.002) *	2.269	.101(.001) #	1.767
소제지	-.146(.059) **	-2.471	-.118(.045) *	-2.034	-.018(.092)	-.289	-.065(.089)	-1.087	-.114(.048) *	-2.042
급여유무	-.059(.075)	-.988	-.119(.125) *	-1.978	-.037(.116)	-.606	-.022(.113)	-.033	-.043(.060)	-.755
Constant	(.397) ***	6.678	(.301) ***	6.384	(.616) ***	2.901	(.599) ***	4.284	(.319) ***	7.474
R ²	.133		.157		.079		.123		.218	
F	3.767 ***		4.588 ***		2.120 **		3.439 ***		6.854 ***	

p<.1, * p<.05, ** p<.01, *** p<.001

것으로 해석된다. 즉 가정봉사원은 현재 이전의 가정봉사원으로서의 활동을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으로 간주하여 응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령변수의 경우, 송미순(198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나, Campbell(1971)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노인과 동거경험 변수는 中野い<子(1991), 冷水豊 外(1993), 이해원(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표 8>에서 노인에 대한 전체 및 하위영역별 태도 결정요인의 설명력들이 그리 높지 않은 이유는 독립변수들 가운데 더미변수가 비교적 많았던 사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그렇게 낮다고만 볼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유의확률(.000)에 근거하여 독립변수의 기울기가 0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어지므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별 결정요인을 분석하면, 우선 태도1에 대하여 성($p = .000$), 노화사실 인지정도($p = .001$), 근무시설 소재지($p = .014$)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태도1에 대한 설명력은 13.3%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근무시설 소재지가 대도시가 아닌 경우가 노인의 가족 관계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태도2에 대하여는, 연령($p = .014$), 성($p = .042$), 근무시설 소재지($p = .043$), 급여유무($p = .049$)의 순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태도2에 대한 설명력은 15.7%이다. 즉 연령이 적을수록, 여성의 경우, 근무시설 소재지가 대도시가 아닌 경우, 무급 가정봉사원의 경우가 노인의 행동특성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태도3에 대하여 활동기간($p = .014$)과 동거경험($p = .049$)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봉사원의 활동기간이 길수록,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노인의 능력감퇴 경향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이 변수들의 태도3에 대한 설명력은 7.9%으로서 약한 수준인 것은 태도3의 문항이 3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태도4에 대하여는 노화사실 인지정도($p = .015$), 동거경험($p = .019$), 활동기간($p = .024$)의 순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태도4에 대한 설명력은 12.3%이다. 즉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 활동기간이 길수록 노인의 사회적 유리 및 소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태도의 하위영역별 결정요인과 전체태도의 결정요인을 비교하면, 우선 가정봉사원의 급여유무는 태도 2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7>의 t-test 결과와도 일치하며, 태도 2가 태도의 하위영역들 가운데 가정봉사원이 노인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영역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표 6> 참조). 또한 가정봉사원의 활동기간은 태도 3과 태도 4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태도 3·4가 태도 1·2의 개인적 특성에 비하여 노인의 사회적 능력 및 소외 특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가정봉사원으로서의 활동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표 9> 가정봉사원의 급여유무별 노인에 대한 태도 2(행동특성) 결정요인 비교

독립변수	전체 가정봉사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 2 (N=299명)		유급 가정봉사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 2 (N=146명)		무급 가정봉사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 2 (N=141명)	
	β (S. E.)	t	β (S. E.)	t	β (S. E.)	t
연령	-.187(.004)**	-2.474	-.164(.006) #	-1.742	-.267(.006)*	-2.117
성	.120(.119)*	2.047	.018(.018)	.217	.173(.141)*	1.988
결혼상태	-.013(.100)	-.175	-.146(.173)	-1.518	.079(.127)	.710
노인과 동거경험	.086(.061)	1.496	.109(.094)	1.273	.043(.082)	.526
노인대상 봉사경험	-.068(.096)	-1.168	.067(.161)	.812	-.160(.118) #	-1.877
학력	-.084(.030)	-1.257	-.053(.046)	-.582	-.087(.042)	-.853
가정봉사원 교육이수	-.089(.087)	-1.442	-.086(.158)	-.986	-.096(.105)	-1.070
노화사실 인지정도	.110(.011) #	1.879	.195(.018)*	2.314	-.010(.014)	-.125
활동기간	.020(.001)	.342	.070(.002)	.844	.001(.002)	.008
근무시설 소재지	-.118(.045)*	-2.034	-.184(.068)*	-2.167	-.041(.061)	-.488
급여유무	-.119(.125)*	-1.978	—	—	—	—
Constant	(.301)***	6.384	(.532)***	3.320	(.369)***	5.967
R ²	.157		.184		.184	
F	4.588***		3.000**		2.858**	

p<.1, * p<.05, ** p<.01, *** p<.001

한편 <표 9>는 가정봉사원의 급여유무별 노인에 대한 태도 2의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미 <표 7>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급여유무별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던 태도 2를 재분석함으로써 점차 이용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유급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필요한 실천적 함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노인에 대한 유급 가정봉사원의 태도 2에 대하여 노화사실 인지정도($p=.022$)와 근무시설 소재지($p=.03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태도 2에 대한 설명력은 18.4%이다. 즉 유급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근무시설 소재지가 대도시가 아닌 경우가 노인의 행동특성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에 비하여 노인에 대한 무급 가정봉사원의 태도 2에 대하여 연령($p=.036$)과 성($p=.049$)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태도 2에 대한 설명력은 18.4%이다. 즉 무급 가정봉사원의 나이가 적을수록, 여성인 경우가 노인의 행동특성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급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무급 가정봉사원의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고, 무급 가정봉사원이 유급 가정봉사원보다 평균 연령이 더 적고 남성 비율은 더 높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대의 여성 무급 가정봉사원이 노인의 행동특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예측할 수 있다.

5. 결론 및 실천적 함의

오늘날 노인인구의 증가는 점차 감소하는 가족 수발자의 역할을 대리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가정봉사원의 파견 등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도입하여 노인 본인의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수발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여 왔다. 최근에는 노인의 장기적이며 다양한 보호욕구에 대응하고자 야간서비스, 용변수발, 목욕보조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급 가정봉사원의 파견이 증가하고 있으며, 차매노인과 같은 중증 질환 노인을 담당할 수 있는 간호전문 가정봉사원의 양성교육도 모색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0년도 노인복지시책의 일부로서 가정봉사원파견 및 양성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가정봉사원의 양적 확대에 앞서 이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내용과 방법의 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유급·무급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 측정하고, 이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보았다. 자료의 분석 결과를 제3장의 연구문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는 24점을 기준으로 14.18점으로서 평균 정답률로 환산하면 59.1%이며, 이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던 간호사 대상의 선행연구 결과(65.0%)나 사회복지사 대상의 선행연구 결과(65.3%)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노화의 신체적·심리적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정봉사원은 노화의 심리적 영역에 대한 이해가 가장 취약하고, 사회적 영역에 대한 이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급여유무별 노화사실 인지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급 가정봉사원의 경우(61.2%)가 무급 가정봉사원의 경우(57.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노인에 대한 가정봉사원의 태도는 5점을 기준으로 평균 2.56점(51.2%)으로서 중간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던 간호사 대상의 연구결과(40.6%)나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던 사회복지사 대상의 연구결과(62.0%)와 일치하지 않았다. 한편 급여유무별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태도의 하위영역인 노인의 행동특성에 대한 태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노인의 행동특성에 대한 무급 가정봉사원의 태도가 유급 가정봉사원의 태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봉사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노화인지관련특성 변수인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성, 자원봉사경험, 시설소재지, 연령, 노인과 동거경험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경우, 노인 대상 자원봉사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 근무시설 소재지가 대도시가 아닌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노인과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가정봉사원의 급여유무는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도의 하위영역인 태도 2(행동특성)에 대하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노인의 행동특성에 대한 유급 가정봉사원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근무시설 소재지로 나타난 반면에, 무급 가정봉사원의 경우는 성과 연령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가정봉사원의 양성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노인에 대한 가정봉사원의 태도를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가정봉사원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표 4>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정봉사원의 인지정도가 매우 낮은 노화의 심리적·사회적 영역에 관한 교육 내용을 현행 양성교육 및 재교육과정에서 보완하여야 한다. 그런데 <표 8>과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봉사원의 학력이나 교육이수는 노인에 대한 가정봉사원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교육방법이 단순한 지식전달 중심의 일방적 강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강의와 함께 선임 가정봉사원의 사례분석, 집단토론, 자신의 체험 공유, 실습 등과 같은 실무 지향의 참여교육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과 살아본 경험이 없는 가정봉사원에게 노인체험(노인과 유사한 신체적 조건), 유사한 동거체험의 기회,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 체험 또는 재가노인수발 체험 등 노인과의 개인적인 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없애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현행 재교육과정에 있어서, 대도시 지역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40대 이상의 가정봉사원을 주요 교육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들 가운데 남성집단의 재교육이 더욱 요청된다. 급여의 유무별로는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급 가정봉사원과 40대 이상의 남성 무급 가정봉사원을 대상으로 노인의 행동특성 등 노화 및 노인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재교육과 함께 직무 내용이 대상 노인의 욕구별로 분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과제로서 측정 도구를 달리하여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던 네 가지 변수들(가정봉사원의 결혼상태·학력·교육이수·활동기간)을 재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해원(1999)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관계를 나타냈던 자원봉사경험 변수도 연구대상을 달리하거나 다른 측정도구로써 재측정되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노인복지시설 유형별·지역별·국가별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 집단간 태도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김매자. 1978. “노인환자에 대한 간호학생과 졸업간호원들의 태도에 관한 조사.” 《중양의학》 제34권 2호. pp. 179~184.
- 김은일. 1982. “노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태도조사 연구.” 《간호학회지》 제12권 1호. pp. 1~12.
- 김효신. 1994. “간호전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중양의학》 제59권 9호. pp. 717~725.
- 손주은. 1989. “일 병원 임상간호사의 노화사실인지 정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미순. 1984. “간호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제27권 7호. pp. 117~125.
- 윤진·조석미. 1982. “경산노화사실인지척도의 구성연구.” 《한국노년학》 통권 제2호. pp. 5~15.
- 윤진. 1988.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I).” 《한국노년학》 제7권 1호. pp. 63~73.
- 유지수 외. 1991. “일 대학의 노인간호학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 《간호학》 통권 제14호. pp. 11~30.
- 이해원. 1999.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조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9호. pp. 266~289.
- 최경옥. 1976. “노인간호에 대한 간호원의 태도조사연구.” 《간호학회지》 제6권 2호. pp. 1~9.
- 冷水豊 外. 1993. “中學生の老人觀.” 《社會老年學》通卷 第38號. pp. 3~12.
- 中野いく子. 1991. “兒童の老人イメージ.” 《社會老年學》通卷 第34號. pp. 23~36.
- 保坂久美子 外. 1988. “大學生の老人イメージ.” 《社會老年學》通卷 第27號. pp. 22~33.
- 前田大作. 1983. “三世代の女性における老化・老人に對する態度.” 《社會老年學》通卷 第18

號. p. 11~19.

- Benson, E. 1982.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 Survey of Recent Nursing Literature."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8(5). pp. 137~144.
- Campbell, M. E. 1971. "Study of the Attitudes of Nursing Personnel toward the Geriatric Patient." *Nursing Research*, 20(2). pp. 147~151.
- Calnan, M. F. & Hanron, J. B. 1970. "Young Nurse-elderly Patient." *Nursing Outlook*, 18(12). pp. 44~46.
- Dupuis, P. H. 1970. "Old is Beautiful." *Nursing Outlook*, 18(8). pp. 24~27.
- Frenay, A. C. & Pierce, G. L. 1971. "The Climate of Care for a Geriatric Patient."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1(9). pp. 1747~1750.
- Garfinkel, R. 1975. "The Reluctant Therapist." *Gerontologist*, 15. pp. 136~143.
- Gillis, S. M. 1973. "Attitudes of Nursing Personnel toward the Aged." *Nursing Research*, 22(6). pp. 517~520.
- Kilty, K. & Feld, A. 1976. "Attitudes toward Aging and toward the Needs of Elder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31, pp. 586~594.
- King, P. A. 1983. "Learning to Care."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9(5). pp. 289~292.
- Kogan, N. 1961. "Attitudes toward Old People: The Development of a Scale and an Examination of Correlat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pp. 44~54.
- Kogan, N. 1979. "Beliefs, Attitudes and Stereotypes about Old People: A New Look at Some Old Issues." *Research on Aging*, 1(1). pp. 11~36.
- Miller, R. B. & Dodder, R. A. 1980. "A Revision of Palmore's Facts on Aging Quiz." *Gerontologist*, 20. pp. 673~679.
- Osgood, C., Suci, G., & Tannenbaum, P.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in *Urban Ill*. University of Illinois.
- Palmore, E. 1977. "Facts on Aging: A Short Quiz." *Gerontologist*, 17. pp. 315~320.
- Palmore, E. 1980. "The Facts on Aging Quiz: A Review of Findings." *Gerontologist*, 20. pp. 669~672.
- Rankin, N. & Burggraff, V. 1983. "Aging in the '80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9(5). pp. 272~275.
- Spence, D. L. 1968. "Medical Student Attitudes toward Old People."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 Society*, 16(Sep.). pp. 976~983.
- Tuckman, J. & Lorge, I. 1953. "Attitude toward Old Peopl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pp. 249~260.

A Study on the Home Helpers' Knowledge about Facts on Aging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 Korea

Prof. Hye-Won Lee

(Dept. of Social Welfare, Sung Kong Ho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home helpers' knowledge about facts on aging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 Korea, and to find out the variables that may influence their attitude. Four hundred and thirty eight home helpers working in a home help agency were given the questionnaire containing the Kyung San Facts on Aging Quiz to measure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aging and Yoon(1988)'s scale to find the direction of attitude toward the elder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nalyzed as follows: (1) The home helpers' level of knowledge about aging was 59.1%, which was lower than nurses' level(65.0%) and social workers' level(65.3%). And the paid home helpers' level of knowledge about aging was 61.2%, which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unpaid home helpers' level(57.0%). (2) Using 5 points scale, mean of home helpe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as 2.56 (51.2%), which was different from nurses' attitude (40.6%) and social workers' attitude(62.0%). And the paid home helpe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s action(29.9%)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unpaid home helpers' attitude(32.6%). (3)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home helpers' levels of knowledge about aging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the home helpe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The other variables that a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home helpers' attitude were sex, voluntary experience for the elderly, age, city size, and personal experience with the elderly. Especially the significant predictors to explain the paid home helpers' attitude were their levels of knowledge about aging and city size. On the other hand, the significant predictors to explain the unpaid home helpers' attitude were sex and ag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and education methods for making home helpe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more positive are also suggested.